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4-09호 / 2004년 12월 22일

2005년도 중국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천동치 (陳東琪)

中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宏觀經濟研究院 副院長

I. 발표요지

1. 중장기 전망

- 개혁·개방이후 지난 25년 동안 중국경제는 연평균 9.4%의 고속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연간성장률을 기간별로 세분화하면, 1978~85년 10.1%, 1986~95년 9.3%, 1996~2004년 약 8.6%를 기록
 - 이처럼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10년마다 0.8% 포인트 하락하고 있어 향후 10년간의 연평균성장률은 7.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11·5계획’ 기간동안에는 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10·5계획’기간보다 0.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비교적 빠른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KIEP 북경사무소는 중국경제의 주요 현안과 경제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경제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월례 정기세미나 및 수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월례 정기세미나인 <한중경제포럼>은 중국의 유관부처 고위관리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이는 1978년 이전의 과거 20여 년간 지속된 계획경제시기의 연평균성장률 6.8%보다 높은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 세계경제가 이룩한 연평균성장률 3.3%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수치임.

□ 중국경제 고속성장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도시화의 진행.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시화는 지속될 것임.
 - 1996년 이래 도시화율은 매년 1.3% 포인트 제고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거대한 투자 및 소비가 유발되고 시장규모의 확대 가능
- 저렴한 생산원가, 특히 노동비용의 우위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외자를 흡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 유지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對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4년 약 600억 달러를 비롯하여 최근 3년간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농업부문은 성장속도가 느리고 제조업과 건설업도 자원의 제한성으로 인해 성장속도가 완만한 것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큼.
 - 이러한 특징은 WTO 가입이후 과도기적 이행기간이 종결된 이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것임.
- 정보화, 네트워크화, 기술발전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함.

□ 중국경제는 향후 10년간 ‘高성장, 低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소비수준은 빠르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

- WTO 가입이후 이행기간이 종결된 이후 정부기능도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행정심사·비준의 간소화, 업종별 진입제한 감소,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등에 의하여 전반적인 경제운용의 국제화 수준도 뚜렷하게 제고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에서 매우 역동적인 새로운 경제로 부상할 것임.

2. 2005년도 경제 전망

- 2005년 경제성장률은 2004년과 비교하여 1% 포인트 하락한 8.3%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단 계획치는 8%임.
- 성장률이 9% 이상을 기록했던 지난 2년(2003~2004)과 비교하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함.
- 9년 만에 단행된 금리인상(2004년 10월 29일)이 2005년에도 1~2차례 추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증가율의 계획치는 15%로 전망이지만 실제로는 2004년 25%에서 내년에는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수요는 2005년 초반에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 전망
- 소매유통량은 2004년 13% 증가에 비하여 계획치는 9% 성장
- GDP의 45%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성장세가 2004년 16% 보다 2%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4%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산업은 2004년 9%보다 높은 10% 성장이 예상됨.
- 대외무역증가율은 2004년 35% 증가율보다 20%로 전망. 단 계획치는 15%이며, 무역적자규모는 2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낮아질 전망이다. 순수출 규모의 감소는 경제성장 감속에 영향을 미칠 것임.

3. 당면 과제

-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1% 포인트는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오는바, 2005년도 경제성장률이 0.8~1% 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취업난이 예상된다.
- ☐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짐.
- ☐ 식량가격 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농민소득의 증가도 완만하게 이루어짐.
- ☐ WTO 가입이후 이행기의 후반기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더욱 거센 압력이 예상된다.
- ☐ 무역흑자가 확대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반덤핑, 보호무역주의, 인민폐평가절상 압력 등에 직면하게 될 것임.

4. 2005년도 거시조정정책의 방향

- ☐ 중국정부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통화안정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5년에도 이를 유지하는 한편 최근 수년간 지속해온 재정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안정정책으로 선회하는 등 2005년도 거시조정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이중 경제안정(雙穩健)’에 둘 것임.

- 장기건설국채발행을 800억 위안으로 축소하고, 교육·문화부문, 보건위생부문, 농촌지역, 중서부지역, 동북지역 등에 대한 인프라건설과 환경관리부문에 중점 지원할 것임.
- 조세개혁은 부가가치세 징수방식(생산형→소비형) 변경, 개인소득세 및 기업법인세 인하, 유류세(燃油稅) 도입, 자원세(資源稅) 징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조세개혁의 목적은 기업 및 저소득자의 세금부담 경감에 있음.
- 금리부문의 전반적인 기조는 안정 유지에 있으나, 물가 및 경제성장 추이와 주요국가의 경제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금리의 인상 여부, 시기, 인상폭 등을 결정할 것임.
- 인민폐 환율문제는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나 환율정책에 대한 개혁 및 조정 여부는 국내취업문제, 수출·자본시장·통화의 안정 등 다양한 조건과 시기를 살펴야 할 것임.
- 2005년은 국유기업개혁 및 M&A, 은행의 주식제 전환, 전신, 연초 등 공공부문이 관할하고 있는 독점업종에 대한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 개혁의 해가 될 것임.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심사비준절차도 더욱 간소화하여 WTO 가입시 약속했던 사항들을 이행함으로써 인프라부문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와 무역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II. 토론 요지

問 : 앞서 발표자는 GDP 성장률이 1% 감소함에 따라 1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하였음. 중국정부는 2005년도 GDP 성장률 목표치를 2004년 9.2%보다 낮은 8%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처럼 GDP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일반 소비자는 성장하락세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될 것임. 특히 실업률 증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임. 이에 중국정부는 경제의 연착륙과 실업률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을 갖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고성장정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答 : 중국정부는 2005년도 경제성장률을 8%로 목표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운용은 더욱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므로 2005년말 실제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0.6% 포인트 정도 감소한 8.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경제의 연착륙과 실업률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첫째,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시키는 것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GDP 비중이 비슷할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음을 알 수 있음. 둘째, 338만명에 달하는 내년도 대학졸업생들을 위한 창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공상행정관리상의 다양한 제한조건을 대졸자 또는 정리해고자들에 대해 완화하는 것임. 셋째,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임. 넷째, 사영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경제의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경제의 연착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04년 적자를 예상했던 중국경제가 실제로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2004년 연착륙·2005년 경착륙을 예상한 전망도 잘못된 것이라 판단됨.

問 :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10월 27일 단행된 금리인상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현재 중국정부는 인민폐 평가절상을 예상한 대규모 자금의 유입을 견제하기 위해 해외투자의 장려와 함께 해외여행자에 대한 인민폐 보유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자본의 유입은 여전히 많은 상태임. 앞서 발표자께서는 내년 중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투자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며 자본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답 : 2004년 단행된 금리인상은 인상폭이 크지 않았음. 경제지표상 효과는 뚜렷하게 보이나, 그 효과가 모두 금리인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4년 6~7월 5.3%, 8월 2.8%, 9월 5%, 10월 4.3%를 기록하였으며, 10월 공업부문 성장율은 지난 분기보다 3% 포인트 하락한 14.8%를 기록함. 또한, 1~10월 28.9%를 기록한 고정자산투자증가율도 12월에는 25%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투자 및 물가부문의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시장가격도입에 따른 식량가격 안정, 산업은행의 기업신용대출에 대한 행정적 통제 폐지 등을 이룩한 후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소비자물가지수가 3% 수준에 머무를 경우, 금리인상 여부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임. 즉,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인상은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인상 단행여부를 예단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임.

問 : 중국은 국내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정부연구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행된 연구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것인가?

답 : 중국이 국내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질문자의 견해에 동의함. 다만, WTO 가입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나, 가입 이후에는 대외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제경제무역협약연구원(상무부),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처 산하에 다양한 연구소가 포진되어 있음에서 쉽게 알 수 있음. 이처럼 대외부문에 대한 연구 강화는 중국경제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대외경제부문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임. 한편, 중국정부내 정책연구원으로는 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사회과학원, 기타연구원 등이 있음. 현재 거시경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는 단기과제, 수시과제, 중장기 정책연구, 기본과제 연구 등이 있음. 또한, 발전개혁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통해 향후 1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과제를

제출하고 그 과제를 1년간 연구하고 있음.

問 :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독점사업부문에 대한 개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우전, 통신 등의 분야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答 :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체제개혁사(司)에서 추진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통신, 전신, 석유부문에서 부분적인 개혁이 있었으며, 우전, 철도부문 등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질 것임.

問 : 최근 몇 달간의 추세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달러의 급격한 약세로 중국의 흑자규모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발표자께서 2005년에 흑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答 : 중국의 금년도 무역흑자규모는 1~4월 107억 달러의 무역적자에서 벗어나 5월부터 흑자를 보이기 시작하여 9월 50억달러, 10월 70억달러, 11월 110억 달러를 보이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는 美달러화 약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美달러화의 평가절하 폭이 너무 커서 내년도 무역흑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개인적으로 볼 때, 내년도 중국의 무역부문은 균형상태 유지 또는 무역적자를 기록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이를 통해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에 대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